

폭염대비 주민건강 챙긴다

진안군, 관내 183개 무더위쉼터 전수점검... 홍보·예찰활동 강화도

진안군은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183개소의 무더위쉼터 운영상황을 점검하며 주민 건강 챙기기에 나섰다. 무더위쉼터는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폭염에 대처가 어려운 독거노인, 거동 불편자, 재해취약계층(767명) 등에게 시원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어 주민 호응도가 높다. 군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무더위쉼터를 지역자율방재단과 합동으로 에어컨 정상가동 여부와 쉼터 내부 청결 상태를 확인하는 등 전수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주민의 시설사용에 대한 불편과 미비사항 등은 즉시 개선하고

있으며, 무더위 쉼터 운영기간 중에도 수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무더위쉼터와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홍보 부채 2,000개를 제작·배부하여 주민들의 무더운 여름나기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은 전광판, 마을애플 및 이장회의 등을 통하여 폭염대비 주민행동요령을 홍보하고 있으며 비닐하우스, 영농작업장 등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폭염취약사업장의 근로자 안전관리를 위하여 그늘막 설치, 무더운 시간대 휴식 권장 수칙을 준수토록 지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진안군은 안전재난과장을 단장으로 상황관리반, 건강관리지원

반을 구성하고 폭염피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재난 및 복지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폭염 대응요령을 숙지토록 했다. 폭염대비와 함께 진안공고 등 17개소에 지진대피시설 안내표지판 설치, 윤일암반일암 등 9개소에 인명피해 우려지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지진, 물놀이 및 위험지역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항록 군수는 "군민 모두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 점검과 홍보 등 사전 대비를 통해 재해 없는 안전한 진안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은 21일까지 3일간 시니어클럽회원 900여 명을 대상으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무주군, 만성질환 예방·관리 순회 교육

무주군은 21일까지 3일 간 시니어클럽회원 900여 명을 대상으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읍면을 순회 방문하는 이번 교육은 무주군보건의료원 건강동행센터 이강안 센터장(간안의원)을 초빙해 진행하는 것으로 19일에는 부남과 안성면에서, 20일에는 설천과 무풍면에서 실시됐으며 오늘은 적상과 무주읍에서 진행되고 있다. 무주군보건의료원 박민자 방문보건담당은 "만성질환에 노출돼 있지만 지리적, 시간적으로 진료와 교육을 받기 힘든 분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라며 "많은 분들이 교육을 통해 변화

의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전했다. 주민들은 교육을 통해 고혈압·당뇨의 원인과 예방관리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며 무주군보건의료원 만성질환 담당자에게 개별 상담을 받으며 맞춤형 건강관리 요령을 숙지하고 있다. 교육에 참가했던 설천면 김 모 할아버지는 "당뇨가 오래되다보니 약간 먹었지 관리를 하는 데는 소홀해지는데 '건강한 여생을 위해서는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된 만큼 식단부터 운동까지 더 많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무진장축협-농협음성축산물공판장 '장수한우' 도축·가공 업무협약

지난 19일 무진장축협과 농협음성축산물공판장은 농협음성축산물공판장에서 '장수한우' 도축·가공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무진장축협에서는 고급품 품질의 한우 공급과 판매를, 음성공판장에서는 도축과 가공을 전담함으로써 안전한 한우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무진장축협에서는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한우가 복잡한 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는 싸고 질 좋은 한우 고기를 생산자에게는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날 무진장축협 송제근 조합장은 현재 마트 11개 매장을 2019년까지 20개 매장으로 확대하고 대도시 농축협 마트 입점을 목표로 한해 2,000두 소비를 예상하고 있다. 무진장축협 송제근 조합장은 "철저한 사양관리와 계열화 시스템을 통해 고급육을 생산해 온 '장수한우'가 국내 최대 공판장인 음성공판장과 MOU 체결을 통해 더욱더 우수한 브랜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며, "국내 최고의 브랜드라는 명성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신소득작물 '망태버섯' 수확 성공

국내 최초 대량생산 인공재배... 2월 집중 7월 수확 시작

무주군이 지역특화 신소득작물로 육성하기 시작한 망태버섯 수확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농가 중심의 자발적 참여와 국내 최초의 대량생산인 인공재배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틈새를 겨냥한 소득 작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2월에 무주군 농업영농법인(망태버섯의 생산과 출하, 가공, 수출)과 머쉬타운조합(망태버섯에 관한 기술과 정보 제공)의 협약 이후, 20여 농가에 망태버섯 종균 접종을 완료했으며 7월 수확을 시작했다. 농가들은 "망태버섯이 고혈압에 좋

고 혈중콜레스테롤과 복부지방감소 효과 뿐 아니라 고급요리의 이용재료로도 상품성이 높아 기대가 크다"며 "그동안 받은 이론과 실습교육을 바탕으로 최상의 버섯을 생산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재배농가들은 망태버섯의 성공적 재배를 위하여 그동안 4회에 걸쳐 망태버섯의 특성, 재배방법, 버섯 생산관리요령 등에 관한 교육 및 버섯접종을 위한 현장실습교육을 이수했으며 지난 18일에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 정종천 박사로부터 '망태버섯의 종 구분과 재배법' 등에 관한 교육도 받았다. 농업기술센터 이장원 연구개발 담당은 "식용과 약용, 천연항균제 등 다양



망태버섯

한 면에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망태버섯이 지역 소득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실증시험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망태버섯 재배를 확대시켜 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망태버섯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신 메뉴를 개발하는 등의 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벗짚환원사업 신청자 접수

내달 31일까지

진안군은 과도한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으로 지력이 떨어진 농지의 논토양 지력증진을 위해 벗짚환원 사업을 신청 받는다. 지력증진 벗짚환원사업은 가을걷이가 끝난 논에 벗짚을 잘게 썰고 가을 갈이를 하는 방식으로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높여 고품질 쌀 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다음달 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최소 0.1ha 이상 최대 2ha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양이 배정량을 초과할 경우 최대 지급 면적은 조정될 수 있다. 11월 중 현지 확인 작업을 통해 대상자로 확정된 농가는 1ha당 20만원 을 지급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 홍삼한방클러스터, 'EN코리아'에 로열티 받는다

탄소마스크팩 2종 기술이전료 100만원·판매량 3% 받기로

진안군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과 친환경 탄소 포장 및 마스크팩 전문기업인 (주)EN코리아가 20일 사업단에서 자체 개발한 진안홍삼 탄소 마스크팩(2종)에 대한 기술이전료와 판매 금액에 대한 MOU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은 (주)EN코리아로부터 정액 기

술이전료 100만원과 업체 판매량의 3%를 수익금으로 받게 됐다. 우선 사업단 독점 판매가 원칙이며, 생산업체인 EN코리아에서 판매를 원할 경우 사업단의 승인 여부에 따라 일정부분 수수료를 내고 판매가 가능하도록 협약하였다. 이번에 협약을 맺은 제품은 사업단

에서 자체 개발한 진안홍삼 탄소 마스크팩 2종으로 이 제품들은 콜라겐 성분을 함유하여 피부 탄력효과를 높였으며, 펄프 재질을 레이온 재질로 변경하였다. 특히, 포장재 재질을 탄소 소재로 채택하여 보존율을 높이고 홍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 진안홍삼 명품화를 위하여 겉 형태의 마스크팩을 개발하여 차별화를 꾀하였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자동차정비업체 지도·점검 실시

장수군은 자동차정비업체 19개 업소를 대상으로 12일부터 19일까지 법적 기준준비 여부 확인을 위해서 자동차 정비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매년 자동차보유수가 증가해 2017년에는 장수군 인구 2명 당 1대로 자동차 보유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증가와 더불어 정비업체 증가와 업체의 겉 형태를 사전에 차단하는 목적으로 실시했다.

군은 간단한 정비업체 육성을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했으며, 지도·점검 중점 사항은 사업자의 필수 시설장비·인력 확보여부, 정비업체 운영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장수군 관계자는 "주기적인 자동차 정비업체 지도·점검을 통해 실생활과 밀접한 자동차정비업체의 올바른 정비 문화 육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진안고원 청정농산물 판매소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파산업과
063-430-2951